

금정공원

금촌1동 보훈회관 인근에 있는 금정공원에 밤새 눈이 내렸다.

밤새 무슨 고민들을 했는지 그 고민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행복의 언어들이 오염된 언어들
을 덮고 있었다.

- 금정공원

금정공원

금정공원

어제밤 눈이 내렸다
고민의 흔적이
밤새 쌓여있었다
미련이야 있겠지만은
떠날 때 떠나지 못한
아쉬움도 몇몇 낙엽처럼
몸부림치고 있었다
오는 세월과 가는 세월이
뒤섞이는 변화의 시간
금정공원에는
행복의 언어들이
오염된 언어들을 덮고 있었다

2024 11 27

금정공원

글/사진 시인 고기섭

